

미국: Peace Mission P. O. Box 5537 Lynnwood, WA 98046-5537 (425) 742-5577

평화 선교회: peacemission7@hotmail.com

한국 : 010-4758-1605 (박노희 집사)

선교사: 이태형, 이줄리 philipthlee@gmail.com

www.facebook.com/pm.moldova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11)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세계에 퍼져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악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이러한 상황을 이기거나 갈 힘을 얻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몰도바 복음을 위하여 함께해 주시며 부족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도와주시는 모든 동역자님과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사진 오른쪽에 서있는 저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고려인 ‘마야’ 자매를 소개하며 또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매의 출생은 중앙 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몰도바 국립대학에서 대학을 마치고 몰도바 청년을 만나 결혼하여 딸과 아들을 낳고, 몇 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은 몇 년 전에 미국에 와서 지금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살고 있지만, 아들은 약간의 신체 불구와 정신적인 병으로 인하여 엄마로써 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4 년 전에 사진의 왼쪽에 서있는 저희 교회 가정교회 목자인 ‘빨리나’ 자매가 자신이 인도하는 가정교회에 초청하여 저희 교회에 대한 소개와 저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함께 갈 것을 여러 번 권유한 끝에 한번 가보자 하고 주일 예배에 나왔는데, 물론 저는 동양인이 처음 나왔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인사를 하였는데 러시아 말로 자기는 고려인이라고 소개하며 고려인들이 말하는 사투리 한국말로

“내 성이 ‘아씨인데, 목사님 성이 무심메요?” 라고 질문하여 너무 반가워 “아, 고려인이세요? 저도 ‘아씨입니다!” 대답하니 “그럼 ‘본’이 어디메요?” 라며 갑자기 한국말 “본’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바람에 잠깐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_^ “아, 본이요? 저의 본은 ‘경주 이씨입니다.” 고 대답했더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아, 나도 메 경주 이씨요!” 하면서 처음 조상의 존함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 친척이라며 자기가 목사님 보다 한 살 아래니까 오라버니라며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그 후 계속 예배와 성경공부반에도 등록하여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역자님들께 부탁은 마야 자매의 아들에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벌써 나이 30 이 넘어 장성하였지만 엄마의 보살핌과 살아가는 자기의 모든 생활을 해결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이 아들이 출생하고 부터 지금까지 아들로 인하여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도 힘들게 이제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살 한번 찌보지 못하고 저렇게 가냘픈 몸으로 이제도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마야 자매가, 더욱 믿음 생활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말기고 주님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들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아직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하루 하루를 여호와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는 줄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 부탁 드리면서, 함께해 주시는 교회와 동역자 모든 분들께 소식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사 이태형, 줄리 올림

